

수술용 가운 착용 만족도에 따른 디자인개발

박상희* · 최정욱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시간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시간강사

모든 의복은 최소한의 기능성이 요구되고 신체를 지지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허용해야한다. 의복은 이브닝 드레스와 같은 미적인 의복과 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요구를 함께 수용하는 비즈니스 슈트, 수술가운과 같은 기능성 의복으로 분류된다. 특히 수술가운은 한정된 장소에서 특수한 활동을 가능케 하면서 의료진을 보호해야하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수술가운은 19세기 초반에 가볍고 살균된 2장의 조각으로 제작되었다. 길이는 바닥까지 닿고 소매는 팔꿈치 길이로 장갑이나 마스크는 없이 착용되었다. 1920년대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광목을 소재로 사용하였고 1939년에는 광목으로는 액체 침투를 막지 못해 고무를 사용하고 소매길이가 3/4정도 길어졌다. 1950년대에 들어서 수술가운에 신소재의 적용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는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물에 대한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가운들은 다루기 쉽고 보호강도에 따라 다양하다. 수술의 위험도에 따라 낮은 수위는 1회용을 사용하고 위험수위가 높고 많은 량의 피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회용 가운은 오염되는 즉시 바로 폐기가 가능하므로 세탁비가 절감되고 착탈이 용이하여 응급실에서 주로 사용된다.

1991년 미국의 OSHA(the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은 모든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병원내의 병원균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술가운은 의료진을 병원균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편

안하고 신체에 잘 맞아야 하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착용하는 수술가운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액 또는 미생물의 전염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따라서 수술가운은 병을 차단하고 신체에 잘 피트되고 신체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가운의 여밈 역시 다양한 신체 형태와 사이즈에 유연해야하며 충분한 내구성도 있어야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수술가운은 의료진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보다 수술 시에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신소재에 관한 개발이나 적용은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현재 수술가운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의료진의 의료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수술가운을 설계하고자한다. 설계된 수술가운은 남녀의 신체 특징과 사이즈에 따른 분류와 수술에 걸리는 시간과 경중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